

北東アジア課長

( )  
昭和

政第 532 号  
昭和 46 年 2 月 26 日

外務大臣 殿

大韓民國  
金山大使

(件名)

沖縄の戦没韓国人慰霊塔 (教通, 解説記事)

引用公・電信  
日付・番号

2月 23 日付 電信 761 号

2月23日付中央日報及び24日付コリアタイムズは、沖縄に太平洋戦争で犠牲となった韓国人の慰霊塔が日本人の同志会により沖縄の地に建てられ、3月24日に除幕式が行われるとの事。24日付中央日報は、本報解説記事を掲載するとの事。2月25日付コリアタイムズは、同日日本放送協会が

付属添付  付属空便 (行)  付属空便 (DP)  付属船便 (貨)  付属船便 (郵)

本信送付先:

本信写送付先: 沖縄 金山 宛

省内写配布希望先:

GA-3-1

在外公館

327

原封者

3/10日



送付先  
金山 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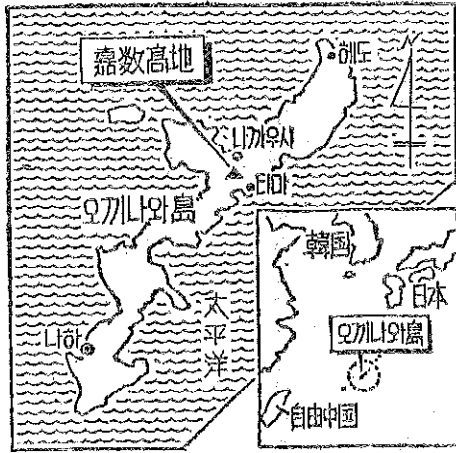
抜(中央日報に正當館訳文付) ~~中央日報~~ に付付し、報告了。

方、中央日報解説記事は、造骨<sup>の</sup> 本加國の返返に

民由に促進( ~~は~~ ) (冒頭引用信事参照) 初<sup>に</sup> 韓國の中央の有力

紙が報道は最初の 4-20 まで 報が出ると、申し渡した。

오기나와의 戰歿韓人慰靈塔



勞務者等 386位 慰靈  
3월24일 除幕式

38線 부근 들38개로 基壇

장자의 진호(鐵邊)순매를  
헤은(다쓰모도) (松本明彦)

운것이며 38선부근의 들  
38개를 수집, 塔의 기반  
(塔基)을 이뤄 놓아서  
다마고국의 땅벌새를만  
도록했다.  
「오기나와」의 전투가한  
참전대장제로 전쟁에투입  
된 한국인은 군인, 노무  
자를 합해 약 3천명이었  
으며 이중 3백86명의의  
생된바있었다. 전투 日本  
정부는 日本인의생자의유  
골만용수집, 안장했음뿐만  
국인의 뒤는 20여년의중  
상속에 버림받고 있었  
다.  
이 탑을세울松本씨는「곳  
곳에 흩어져 버림받고있

日人同志會서 贖罪 뜻으로

태평양전쟁이 끝났음  
(45년3월8일) 日本국헌  
법의해 장제로 전쟁피해  
를타가「오기나와」에서의  
생된 3백86명의 한국인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탑이 전투 26년만의  
日本의 전쟁범죄를 속죄  
하는 日本인의 손으로 세  
워져 오는3월24일 제막  
된다.  
「高田의 塔」으로 이름

자이진 이 위령탑은 이  
미잇단적지않던「오기나  
와」의 중부지방인 嘉数  
코지에 세워졌다.  
제막을 앞둔 이탑은전  
후 26년동안「오기나와」를  
비롯, 태평양의 적진지를  
활약한 7백여만원승 모아  
서가 이끄는 日本民主  
사회(京都市下京協)가, 오  
기나와」에서 희생된 한  
국인의 영혼의 20여년동  
안 버려져 있었다는 것을  
안고 속죄의 뜻으로 전  
국인의 열의로 3월24일에있을 제막  
식의 禮堂에서 대조자가  
참석해 주도할  
다.

2月23日付 中央日報

(記事要約)

沖縄に戦没韓国人慰霊塔

労務者等 386位の慰<sup>霊</sup>塔

3月24日 除幕式

38°線付近の石38個で基壇

日本人同志会で贖罪の意味で

太平洋戦争の終りに 日本軍による強制的に

戦場に送られ、沖縄で犠牲とされた 386名の韓国

(のこりの)  
人 ~~魂を慰養する~~ 慰霊塔が 26年目に 日本が戦

争犯罪を贖罪する日本人の手にお建てられ来た子

3月24日に除幕した。

~~青~~  
~~丘~~

の塔と名付45mの慰霊塔は、沖縄中

部の嘉数高知に建てられている。

この塔は、戦後26年間、中二次大戦の激戦地

を訪れ、献花団を作り、犠牲者の鎮魂巡礼を行

つて来た松本明重氏~~が~~<sup>の</sup>新起子日本民主同志会(京

都市)が、沖縄で犠牲となった韓国人の霊魂が20

余年間<sup>以来</sup>おぼろりに~~残~~っていることを知り、贖罪の意味で、建立

運動をくりひき、2千7百余万円を集めて建てられ

たものであり、38度線近くの石38個が塔の基壇と

なっており、死んでからでも故国の土のにおいをかぐことの

できる方にはけり。

この塔を建てた松本氏は、来たる除幕式に韓国

からの代表者が参加することを望んでいる。

ZAZPWA 217 7542

## Memorial Tower Due In Okinawa

A memorial tower is to be erected in Okinawa by a group of Japanese to honor 386 Koreans who were forcibly brought to Okinawa during World War II and died in action, it was learned yesterday.

Informed sources said the tower, which will have the ashes of the war dead beneath it, is to be dedicated on Mar. 24 at a cost of 27 million yen.

The sources said the group started a campaign to raise money for the tower construction in penitence for the Koreans' deaths.

The sources said about 3,000 Koreans were brought to Okinawa by Japan during World War II. Of them, 386 were believed to have died in action. However, the dead have been left uncared for the past 26 years, the sources said.

In the meantime, the Seoul city government dedicated a similar tower toward the end of last year to preserve the ashes of Japanese who died in Korea.



太平洋戰爭도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오끼나와」의 싸움에 끝이 났을 때 한 국인은 3천명, 그 중의 3백86명의 희생되었다 한다.

이들의 遺骨이 26년의 風霜속에 버림받듯 버려진 골에 이제야 「오끼나와」에 세워진 慰靈塔에 안장된다고 한다.

이름하여 「齊丘」의 塔。38線부근의 돌 38개 塔의 基壇을 세운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恨이 풀려진 것인가.

있고 싶은 歷史의 한 획이었다. 過去로 하여금 過去를 파묻게 하라는 말이 있다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도 가슴 아픈 우리네의 體験이었다.

2次大戰 때 徵兵令과 國家總動員令으로 강제 動員된 한 국인은 약 3백만명. 그 중 2만명의 신체戰線으로 끌려가고 그 중의 약 2만명이 희생되었다.

強制勞動에 從事한 수는 3만 8천명이라지만 그 중 일파나 희

생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모든 歷史와 記號으로 부터도 말살된 채 이들의 遺骨은 日本의 炭坑에서 풀려 놓여져 放置 되어 있는 것이다.

「炭坑」은 무서웠지요. 언제 바위가 떨어질지도 몰랐습니다. 罪愆로 죽은 사람을 파묻은 구덩이가 좀비하게 잘리고... 몸이 아파도 쉬지 못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다이내이트」를 입에 물고自殺한 사람도 있었습니...

안간가 日本의 韓人들은 어떤 回國 誠을 심은 적이 있다. 이런 고생의 죽음 한 국인 勞務者들의 遺骨이 筑造에만도 수백體가 放置되어 있다는 얘기가.

歷史의 怨靈

찾는이가 없어 버려두고 있는 遺骨들은 또 日本厚生省의 韓人에서 잡혔어 있다. 2천3백30體. 이들은 모두 南方戰團에서 戰歿한 韓人 軍人. 軍屬들이라 한다. 戰後 지금까지 遺族의 손에 넘어간 遺骨은 7천2백體. 그러나 2천3백30體만은 戰後 26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日本武藏 埼玉에서 잠들어 있는 것이다. 어느 쪽에 賊寇가 없어서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벗어날 도 고이 잠들게 하자는 것은 國境과 政治를 초월한 가장 人道的인 얘기가 아닐까.

遺族을 찾지 못해서라는 것은 어느 쪽에서 나온 말인지는 우리 품을 한 걸 더 해 주고만 있다. 日本의 人의 1 정 배 60만이 모두 確



넘는 戰死者의 身元이 認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日本의 田川市에서도 戰歿人을 위한 慰靈塔이 計劃되고 있다 한다. 어떤의 「齊丘」의 塔도 日本人들의 속죄의 뜻으로 세워진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모든 歷史의 怨靈들을 고이 잠들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 잠들게 만들 수 있겠는가.



( 2月24日付 中央日報 )

< 噴水台 >

# ( 歴史の怨霊 )

太平洋戦争が終幕に達した時分 沖縄へ連れられていた

韓国人は3,000名、その中で366名が犠牲になったとい  
ことである。

被りの遺骨を26年間もほったらかし<sup>23日</sup>末に、やっと今沖縄  
に立てられる戦没韓人慰霊塔に安置されると、伝えられて  
いる。名付けて「青丘の塔」。38度線附近の石38個  
はより基礎の壇を築くとのことであるけれども、はたして被りの  
恨みが<sup>2</sup>回復<sup>3</sup>せであらうか。

忘れたい歴史の一部がある。過去は過去として暮り去るべし

という記しがあるけれども、それにはあまりにも辛い体験であつた。

2次大戦の際徴兵令と国家総動員令により強制動員された

韓国人は約300万名。その中24万名が戦線にひっぱられていた

のであり、その中で約20,000名が犠牲になつた。

強制労働に従事した者は38,000名といつてゐるけれども、この

中のいくらが犠牲になつたかはたれも分らない。あつた歴史

と記録<sup>から</sup>によるにしても、~~戦場の遺骨~~ <sup>2次大戦の遺骨</sup> 抹殺されたまま日本の

各炭鉱の附近に散在して放置されてゐるのである。

何時か日本の一新聞が炭鉱労働者の同種談を掲載した  
ところからいっても、言い尽くせない苦しみのおかげで死んだ  
韓国人労働者たちの遺骨が筑豊だけでも数百体が設置  
されていると、伝えられている。

韓国人が現存している状態で設置している遺骨は、また日本  
厚生省の一つの部局で眠っている。2,330体。

彼らはみな南方戦線で戦死した韓国人の軍人・軍属で  
あるとのことである。戦後今までの間、遺族の手に渡された  
遺骨は7,200体。これ上記の2,330体だけは戦後

26年が経った今に至るまでそのまま日本式祭壇の後に

置かれています。

どちらの片に誠意がないかは確かでないけれども、<sup>3</sup>魂

でもせめて安眠させようとするとは、国境と政治を越えた

最も人道的な話ではなからうか。

遺族が見付からないので、<sup>4</sup>と云うのはどちらから来た話して

~~あつた~~ <sup>(ついで)</sup>、おれおれの悲しみをより一層深めるだけである。

日本人の場合には 160万を超す戦死者の身元が全部確認  
されているのである。

いま日本の田川市にも戦没韓国人のための慰霊塔が

計画されていると、伝えられる。この度の「青生の塔」も

日本人たちの恩恵の ~~基盤~~ <sup>(気持から)</sup> <sup>はた</sup> 建てることである。

しかしながらゆれゆれは何時の日も総て歴史の起るを

やむを得ないに思はせざるであらうか。